

# 스페인어와 한국어 분노 관용표현의 은유적 유형 분석

조혜진

## Abstract

**Cho Hyejin.** 2013. 10. 31. **Analysis of the Metaphorical Types of the Phraseological Expressions about Anger in Spanish and Korean.** *Bilingual Research* 53, 241-274. According to the cognitive metaphor theory, metaphor is involved in the behaviors and the attitudes to our lives creating process of reasoning. In this paper, I try to show how the way of conceptualizing anger affects peopl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ain the conceptual structure, which is inherent in the emotion, on the basis of the cognitive metaphor. As the phraseological expressions are produced as a result of a process of metaphorization, I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hraseological expressions about anger in Spanish and Korean. In the analysis, I illuminate that the concept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huma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and the concept of the particular aspects based on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of a language community engage in the formation of the phraseological expression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etaphor(은유), phraseological expressions(관용표현), conceptualization(개념화), understanding of phraseological expressions(관용표현 이해)

## 1. 들어가는 말

라틴어 METAPHORA에 어원을 둔 스페인어 *Metáfora*(은유)는 원래 그리스어 전치사  $\mu\acute{\alpha}$ (*META* 밖에, 너머에)와 동사  $\tilde{\iota}$  (*PHOREIN* 옮기다, 지나가다)가 합성된  $\mu\acute{\alpha}$ 에서 비롯되었다. 은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철학에서 시작되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도 언급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유구하며, 전통적으로는 언어 현상의 일부로 문학 이론이나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1979년 M. Reddy가 은유의 인지적·관습적 체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은유가 시적·수사학적 담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근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후, 언어와 철학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연구들 중 언어학자인 George Lakoff와 철학자인 Mark Johnson이 자신들의 공저인 『*Metaphors We Live By*』(1980)에서 인간의 일상적인 사고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은유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며 이러한 은유 개념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 언어를 비롯한 일상적인 삶에 널리 퍼져있다고 주장하였다(1980: 39). 이 같은 관점에서 은유의 핵심은 경험하는 영역을 다른 영역을 통해 이해하고 언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sup>. 일례로, 생각이나 시간, 감정 등의 추상적 개념을 방향이나 사물처럼 좀 더 명확한 대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은유적인 사고란 구체적인 근원영역(*dominio de origen*)에서 추상적인 목표영역(*dominio de destino*)으로 사상(寫像, *mapping*)하는 인지적 이동을 가

---

1) La función primaria de la metáfora es proporcionar una comprensión parcial de un tipo de experiencia en términos de otro tipo de experiencia. Esto puede implicar semejanzas aisladas preexistentes, o la creación de semejanzas nuevas, y mucho más [...] son las semejanzas tal como son experimentadas por la gente. (Lakoff & Johnson 1986: 195-196).

리키며, 은유적 투사(投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은 상이한 영역 간 사상의 표출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체계 대부분이 은유적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 영역에서의 학문적 발견을 초월하여, 은유를 인간 사고의 주변적이고 장식적이고 특수한 요소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개념에 정면으로 맞서는 획기적인 학문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은 은유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탈바꿈시킴으로써, 은유가 일부 언어적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개념 체계를 구성하거나 학습하는 행위에서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일깨운 것이다.

한편, 인간의 상호관계와 경험, 체험적 지식, 문화적 특성 등을 함축적 배경으로 하는 관용표현(*expresión fraseológica*)은 은유적 언어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례로, *no tener pelos en la lengua*(솔직하다), *estar en las nubes*(딴 생각을 하다)와 같은 관용표현은 ‘*decir sin reparos lo que se piensa*’, ‘*ser despistado/a*’의 비유적 언어표현에 해당하므로 은유는 관용표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용표현이 대부분의 은유와 마찬가지로 축어적(逐語的)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화행(*acto de habla*)에서 화맥이 의미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 간접 화행이라는 점도 은유와 공통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 은유이론과 관용표현에 대한 기본 이론과 함께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분노 관련 관용표현을 어휘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대조,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보편적이거나 문화의존적인 비유적 관용표현을 살펴봄으로써 은유적 개념구조의 조직에 있어 인간 감정의 신체·생리적인 반응과 문화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문화·관습적 요소와 지식을 구조화하는 양상과 동일한 근원영역이 상이한 이미지로 언어화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념 은유 이론에 기댄 스페

언어 관용표현 연구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개념 은유 이론이 관용 표현의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아울러 인간 언어 공통에 내재된 개념 구조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 2. 개념 은유와 관용 표현

### 2.1. 개념 은유<sup>2)</sup>

전통적으로 인지 활동과 관련된 언어와 시나 예술처럼 감정 표현과 관련된 언어 간의 엄격한 구분은 은유를 수사학이나 시학의 범주 내로 한정할 뿐, 인문학 전반에서는 진지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특히 Michael Reddy의 ‘도관은유(Metáfora de canal)’<sup>3)</sup> 이후 은유가 인간의 사고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은 Reddy의 이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일상적인 사고에 잠재되어 있는 은유구조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식에 대해 고심하였다.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한다. 따라서 개

---

2) Lakoff y Johonson (1980), Gibbs(1994), Johnson(1987), Lakoff(1987), Sweetser(1990) 등을 참고할 것.

3) 언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관(canal)과 같은 기능을 하여, 말이나 글을 통해 발신자가 생각이나 감정을 보내고, 수신자가 꺼내보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효율적인 표현을 위해 의미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은유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은유가 사고의 문제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념체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실재를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개념체계가 대부분 은유적이라는 우리의 제안이 옳다면 우리의 사고 방식, 경험 대상, 일상의 행위 등은 매우 중요한 정도로 은유의 문제이다(Lakoff & Johnson 1986: 39; 노양진, 나익주 역 2006: 21-22).

Lakoff & Johnson은 은유가 인간이 세상을 범주화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특정 문화에 의해 생성된 여러 상이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축어적 의미를 전이된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상이한 경험역 간의 사상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였다(1980: 39-41).

한편, 문학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은유를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Lakoff & Johnson의 개념 은유 이론은 세 가지 상이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방향은유(Metáfora orientacional)는 전반적인 인지 구조를 다른 구조와의 상관관계 하에 조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간적인 의미의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신체 구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위/아래, 안/밖, 앞/뒤, 표면/깊이, 중심/외곽 등이 주요한 대립 개념을 이룬다.

(1) LO BUENO ES ARRIBA(좋은 것은 위).<sup>4)</sup> / LO MALO ES ABAJO  
(나쁜 것은 아래).

- a. 그는 고상한/저급한 정신세계를 가졌다
- b. Es un pensamiento elevado/rastrero.(고상한/저급한 생각이다)

(2) FELIZ ES ARRIBA(행복은 위). / TRISTE ES ABAJO(불행은 아래).

---

4) 개념 은유는 스페인어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의 한국어와 스페인어 예문은 저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 a. 나는 기분이 들떠있어.
- b.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 c. Estás saltando de gozo.(너는 기뻐서 경충경충 뛰다)
- d. Mi moral cayó por los suelos.(내 기분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3) SALUD ES ARRIBA(건강은 위다). / ENFERMEDAD ES ABAJO(질병은 아래다).

- a. 할아버지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
- b. 그는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져 버렸다.
- c. En cuanto a su salud, va hacia arriba.(건강에 관해서는 상승세에 있다)
- d. Su salud declinaba con los años.(그의 건강은 세월과 함께 기울었다)

두 번째는 존재론적 은유이다. 이는 특정 경험을 물체나 내용물에 의하여 이해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실체나 물질, 용기, 인간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4) EL CUERPO (O LA MENTE) DEL SER HUMANO ES UN RECIPIENTE(인간의 몸은 용기).

- a. 수학 공식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
- b. 방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야 눈에 들어오네.
- c. Tengo una melodía en la cabeza.(머릿속에 멜로디가 있다)
- d. Ya no me cabe más comida.(나는 음식이 더 들어가지 않아)

세 번째가 구조적 은유이다. 이는 인간의 사고에 구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은유를 가리키는데, 특정 행위나 경험이 다른 행위나 경험의 구조로 조직되는 경우이다.

(5) UNA DISCUSIÓN ES UNA GUERRA(논쟁은 전쟁).

- a. 나는 논지의 약점을 공격했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방어했다.
- b. 나는 결국 그녀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 c. Tus afirmaciones son indefendibles.(너의 단언은 방어할 수 없다)
- d. Destruí su argumento.(나는 그의 논리를 깨부숴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개념 은유의 기본 이론은 인간의 감각, 행동, 인지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방향은 물론 존재론적 은유의 용기, 사물, 물질 또한 인간의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방향 은유나 존재론적 은유는 그 자체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구조적 은유의 경우는 인간의 사고 능력의 무궁무진한 창조성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개념 은유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 은유는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이나 인지시스템과 관련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언어 체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은유는 경험에서 우러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성이나 배경. 관습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물리적 현실이 인간의 사고·인지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 은유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대표적 비유 은유로 볼 수 있는 관용표현, 특히 분노 관용표현을 분석함으로써 감정과 관련된 인간의 인지체계에 공통적으로 혹은 상이하게 존재하는 은유의 구조를 비교·고찰하고, 또한 문화적 특이성이 은유의 개념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2. 관용표현의 특징과 은유

일반적으로 관용표현<sup>5)</sup>은 축어적 해석과 성구적(成句的) 의미가 불일

5)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expresión fraseológica(또는 unidad fraseológica, fraseologism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명칭으로서,

치하고 통사적으로 고착화된 단어결합체를 일컫는다. 이 단어결합체와 비유적 의미 간의 자의적 관계는 전통적으로 관용표현을 발화의 규칙성에서 어긋난 형태로 간주하게끔 만들었으나, 어휘부(Lexicón)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관용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관용표현을 ‘반복된 담화(discurso repetido)’의 한 범주로 간주한 Coseriu(1977: 113)에 의하면 이들은 첫째, 단일어이던 복합어이던 독립적인 어휘와는 다른 다중어휘적인(poliléxico) 특성을 갖는다. 둘째, 전체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단위로 암기하도록 하는 고착성을 갖는다. 셋째, 어휘적 불투명성, 즉 숙어성(熟語性)을 갖는다.

실제로 위의 정의는 Coseriu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특정 어휘로 구성되고 통사적으로 고착 구조를 보이는 관용표현은 언어공동체마다 상이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축어적 의미의 함으로 총체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없으며, 통사적 고착성과 숙어성의 결과로 어휘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빈번한 사용을 통해 관용표현을 반복적으로 재생, 기억하게 된다<sup>6)</sup>.

은유 현상을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기반이 되는 개념체계의 중요한 본질로 파악하는 개념 은유이론은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물질화하거나 경험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언어화할 수 있게 해주는 인지 과정이 은유라고 설명한다. 즉, 친숙한 개념의 근원 영역에서 덜 친숙한 개념의 목표 영역으로 정보가 사상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인지 구

---

dichos, expresiones fijas, expresiones idiomáticas, frases, modismos, giros, fórmulas, fórmulas proverbiales, idiotismos, locuciones, modos de decir, frases hechas, refranes, adagios, proverbios, aforismos, colocaciones, expresiones, unidades pluriverbales(lexicalizadas o habitualizadas), unidades léxicas pluriverbales 등을 포괄한다(Penádez Martínez 1999: 13).

6) I. Penadés Martínez(1999), L. Ruiz Gurillo(1997, 1998), A. Zuluaga(1980) 등을 참고할 것.



조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념 은유 EL TIEMPO ES DINERO(시간은 돈)는 추상적 개념인 ‘시간’이 물리적으로 경험 가능한 ‘돈’을 통해 구조화되어, 시간을 ‘낭비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등의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도 시간은 ganar, malgastar, ahorrar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EL TIEMPO ES DINERO(시간은 돈).

- a. 시간을 벌다 / 낭비하다 / 아끼다.
- c. Vive de tiempo prestado.(그는 빌린 시간을 살고 있다)
- d. Pidió que le repitieran la pregunta para ganar tiempo.(시간을 벌기 위해 질문을 반복해줄 것을 부탁했다)

축어적 해석과 성구적 의미가 다른 비유적 언어표현인 관용표현에 대해 개념 은유 이론은 이들이 위와 같은 은유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결과로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체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은유가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분노 관용표현에 어떠한 구조적 체계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관용표현은 대화중에 새로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고 반복되는 일종의 언어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화자들도 동일한 화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며 은유와 마찬가지로 간접 화행이다. 그리고 우리는 은유의 기본 기능, 즉 한 종류의 경험을 다른 종류의 경험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Lakoff & Johnson 1986:195-196) 기능 때문에 관용표현의 의미를 은유를 통해 이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관용표현은 심상 어휘부(Lexicón mental)에서 단독 어휘로 실현될 수 있는 고착화된 표현으로 간주된다<sup>7)</sup>.

한편, 관용표현은 단순히 언어적 양상이 아니라 문화적 양상이기도 하

7) subírsele a alguien el pavo는 ruborizarse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다. 문화와 관용 표현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M. Forment (2000: 65-66)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관용표현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회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결론적으로, 관용표현은 이중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첫 번째는 언어학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화자가 사용하는 관용 표현에 반영된 문화 패턴과 관련된 측면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위/아래의 이분법적 방향은유는 문화에 따라 높거나 낮은 가치들과 연관되지만, 이 상하의 방향 개념이 우선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화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 공통의 은유 체계에 바탕을 둔 관용표현과 함께 문화의존적인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공동체에 내재된 분노 관용표현과 관련된 은유체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 3.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분노 관용표현<sup>8)</sup>

관용표현은 언어 표현 간 연관 관계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관용표현이 언중의 근본적 사고방식이나 언어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뜻이며, 또한 이 둘 간의 관계가 중첩되어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정서표출·심리상태 관련 관용표현 또한 정서적 경험을 개념화하는 양상이 인간 보편적인 생리적 변화를 은유화하거나 문화적 고유성에 따른 개념 구조가 반영되어 생성된다.

《중용(中庸)》에서는 인간의 기본 감정을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

---

8) 한국어 관용표현은 임지룡(1999), 김향숙(2003), 스페인어 관용표현은 Irribaren(1996), Martín Sánchez(1997), Buitrago Jiménez(1995) 등을 참고했음.

(哀), 즐거움(樂)으로 구분하고, 《예기(禮記)》의 <예운(禮運)>에서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망(欲)의 일곱 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중 분노(憤怒)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화’, ‘성’, ‘골’, ‘역정’, ‘노여움’ 등의 유의어와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얼굴 표정이나 신체 내외적인 증상, 지각 활동, 이미지 등의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인 화는 언어를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즉 화가 나면 체온과 혈압이 상승하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주먹을 쥐거나, 미간을 찡그리거나, 정상적인 지각의 장애를 초래하는 등 인간 공통의 신체적·심리적 양상이 그대로 언어화되어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노의 표출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언어공동체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그 은유적 표현 또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Lakoff(1987)는 분노의 감정을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은유적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은유적 개념구조에 의거하여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분노 관용표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의존적인 분노 관용표현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은유의 구조화에 문화적 고유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은유를 통해 구조화되는 양상과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 3.1. 은유적 개념 체계에 기댄 문화보편적 분노 관용어

Lakoff(1987: 380-397)는 분노와 관련하여 불, 연기, 용기 속의 액체의 가열, 파괴적인 힘, 제 정신이 아님, 투쟁, 위험한 동물이라는 근원 영역을 설정했다. 목표 영역인 분노를 근원 영역인 불, 연기, 용기 속의 액체, 파괴적인 힘 등의 함수 관계로 이해하여, 인간이 분노라는 격한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 혈압과 체온이 상승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은유의 구조화에 반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Lakoff 뿐만 아니라 분노 관련 은유에 대한 여러 언어 대조 연구에서도 분노는 공통적으로 혈압 상승, 열기에 직결되며, 혈압 상승과 무관하거나 냉기와 연관된 언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Luque Durán y Manjón Pozas 2002: 191). Lakoff는 영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를 제시하였으나 감정의 신체 반응을 바탕으로 은유적 개념이 구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류 공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어와 스페인어 분노 관용표현의 일부는 문화보편적인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은유적 구조를 더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3.1.1. LA IRA ES FUEGO(분노는 불)

국어사전에서도 분노를 불(火)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듯이 분노는 인간의 신체에서 불의 이미지로 실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눈에서 불이 나다’라는 관용표현은 분노가 강렬하게 이는 것을 마치 불이 옮겨 붙어 타오르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언어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이 지닌 열기를 분노라는 뜨겁고 급작스런 감정에 은유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 a. 분노를 감추려 해도 눈에서 천불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b.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다.
- c.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돋고 사지가 부르르 떨리다.
- d.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것 같다.
- e. 속/가슴/복장이 타서 더 이상은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 f. 눈알이 시뻘개질 정도로 분개하다.
- g. 치솟는 화에 얼굴이 붉어지다/붉으락푸르락하다/새파래지다.

한국어에서 불로 은유화된 분노는 주로 눈, 얼굴, 속으로 대변되는 간이나 심장 등의 신체어와 함께 등장한다. 고양된 감정인 화(火)는 불의 속성과 연관되어 인간의 눈이나 속에서 타는 것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속을 태워버리고 불타오르고 불덩이가 되어 위로 솟아오르며 눈에서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즉, 용언도 불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냥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 개의 불이 나는듯하다고 분노의 정도를 높이기도 한다.

한편, 분노한 상황을 빗대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설상가상의 경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눈에 쌍심지 켜다/돋다’는 등잔을 사용하던 과거의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하여, 쌍심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대인도 관용적으로 이용하는 빈도 높은 표현이다.

불의 속성은 색채어에서도 드러난다. 분노로 인한 생리 현상인 혈관 반응으로 인해 얼굴의 홍조나 눈의 충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불의 속성에 견주어 붉거나 푸른 얼굴이나 눈의 색깔로 감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스페인어에서도 열(열기)과 관련된 것은 보통 동요, 문젯거리, 소요와 관련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LA IRA ES FUEGO의 개념 은유로 구조화된 관용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 h. Ella echaba fuego/rayos/chispas/chiribitas/lumbre por los ojos. (그녀는 눈에서 불/번개/불꽃/불꽃/불을 뿜었다)
- i. Mi madre está que arde porque rompí su plato favorito. (어머니가 내가 아끼시는 접시를 깨뜨렸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신다)
- j. Cuando se enteró del fracaso de su hijo, se puso rojo. (아들의 실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 k. Al oír la noticia, le quemó la sangre. (소식을 듣자마자 피가 타버렸다)

1. Si quieres mojarle la pólvora a José, llámalo primero.(호세의 불꽃에 물을 끼얹고 싶으면 지금 전화해)

스페인어에서도 분노는 눈에서 불을 내뿜는 양상으로 구조화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主神) 제우스가 노여워할 때 지상으로 번개를 집어 던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서구 문화권에서 분노와 불은 일찍부터 개연성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Fuego, rayos, chispas, chiribitas, lumbre는 크기나 세기는 다를지언정 공통적으로 번개, 불, 불꽃 등을 의미하므로 한국어와 같이 눈이 불을 담는 도구로 표현된다.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사람이 분노로 활활 타는 듯한 격렬한 감정을 내뿜는 것을 arder(불타다)로 표현하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불과 관련된 스페인어 관용표현의 수는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불을 담는 신체 부위도 눈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어의 다양한 신체어 구사와는 차이가 확연하다.

한편, 분노라는 불은 액체인 피를 태워버리기도 한다. 이때 quemar a alguien la sangre(피가 타다)는 encender a alguien la sangre(피에 불을 지피다), arrebatarle a alguien la sangre(피를 빼앗다)와 동의어 관계를 유지하므로 이들 또한 LA IRA ES FUEGO(분노는 불이다)의 개념 은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슬려 분노를 잠재우다’를 뜻하는 mojar a alguien la pólvora(불꽃에 물을 끼얹다)에서도 불이 붙어 터져버리는 화약에 비유된 분노를 적시는 것으로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은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색채어의 경우, 한국어와 같이 불의 색깔인 빨간색으로 분노의 감정이 은유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estar/ponerse negro(얼굴이 까맣다), ponerse de mil colores(얼굴이 울긋불긋하다) 등의 기타 색채어로도 분노의 감정이 은유화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 m. Venga, no le eches más leña al fuego.(자, 불에 장작을 더 때지마)  
 n. Su enfado se está consumiendo.(그의 분노는 사그러든다)

또한 타는 불에 장작을 더한다는 은유는 스페인어에도 동일한 관용표현을 생성했으며, 분노가 수그러드는 것도 n.에서 보다시피 꺼져가는 불처럼 *consumirse* (el fuego)로 은유화된다.

### 3.1.2. LA IRA ES LÍQUIDO CALIENTE DENTRO DE UN RECIPIENTE(분노는 용기 안의 뜨거운 액체)

이 개념 은유는 구조적 은유이자 존재 은유로서, 화를 내고 이를 표출하는 것이 마치 용기에 든 액체를 가열하여 끓이고 수증기를 내뿜고 용기에서 넘치는 것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 a. 속/분통/울화통/열통이 끓다/달다/터지다/부글부글하다/치밀다.
- b.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열이 났다/뻘뻘했다(머리꼭대기까지) 올랐다/받았다.
- c. 진실을 정정할 수 없어 나는 피가 끓는다/거꾸로 솟는다.
- d. 분아<sup>9)</sup>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다/끓다/돈다.
- e. 이웃집 여자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내게 달려들었다.
- f. 상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꼬리에서 노여움이 뚝뚝 떨어지다.

몸은 분노가 끓는 용기<sup>10)</sup>가 된다. 즉 더욱 복잡한 개념 구조를 창출하

9) 폐장, 허파 (국립국어원)

10) 이와 같은 은유구조에 의해 분노를 비롯한 모든 감정들이 몸이라는 용기에 담긴다. 예를 들어, *Estar lleno de ira* (contento), *No cabe más felicidad en mí*, *Desborda alegría por los poros*, *Estar saturado de aburrimiento* (dolores), *La procesión va por dentro* 등의 관용표현은 *EL CUERPO ES UN CONTENEDOR*(몸은 용기) 은유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기 위해 은유가 중첩된 경우인 것이다. EL CUERPO ES UN CONTENEDOR(몸은 용기), LAS EMOCIONES SON SUSTANCIAS(감정은 물질), LA INTENSIDAD ES CALOR(강렬함은 열)의 개념 은유가 융합되어 용기, 열, 액체의 특징이 모두 발현되는 상황이다. 압력 때문에 속이나 부아로 표현되는 용기 속 액체가 열을 받아 끓어오르고, 거품이 넘치고, 용기가 터지기도 한다.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올라 최고조에 이르고, 분노라는 내용물의 압력이 올라 끓던 피가 몸 밖으로 넘칠 정도라는 강조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현재 ‘뚜껑이 열리다’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노는 여전히 열 받으면 폭발하는 용기라는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불과 같이 타오르는 성질이 있는 분노가 몸 안의 내용물에 열로 작용한 결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분노는 열이며 용기안의 액체이므로 노여움이 눈을 통해 몸 밖으로 흘러나가기도 한다. 한편, 용기 속 액체가 끓으면서 용기에 그 진동이 전해져 외부에서 감지되거나 표출되기도 한다.

- g. 분노로 몸이/살이 떨리다.
- h. 화를 삭힐 수 없어서 이가 떨리다/갈리다(치를 떨다).
- i.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다.

스페인어에서도 분노는 몸이라는 용기 속 액체, 즉 피를 달구고, 머리를 달구고, 위로 솟구치게 하고, 용기를 채우거나, 끓는 액체를 용기에서 넘쳐흐르게 만드는 등의 은유적 상상으로 표현된다.

- j. Cuando se lo dijeron, él echaba espumarajos por la boca.(그에게 그것을 말해주자 그는 입에서 거품을 뿜었다)
- k. Al verlo, se me subió la sangre a la cabeza.(그것을 보자 나는 머리로 피가 솟구쳤다)



- l. Tomó la decisión, a sangre caliente, de no hablar con ella.(그는 흥분하여 그녀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 m. Tus palabras me hierven la sangre.(네 말은 내 피를 끓게 만든다)
- n. Estoy hasta las narices de tus mentiras.(나는 네 거짓말에 질렸다)
- o. No me calientes los cascos, que ya no aguanto más.(내 머리를 열나게 하지마,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까)

Echar espumarajo(espuma) por la boca는 한국어 ‘입에 거품을 물다’와 동일한 은유 구조를 보이고, subírsele a alguien la sangre a la cabeza는 격분된 감정으로 인해 피가 타버리는 encenderle a alguien la sangre 등과 동일한 화맥에서 쓰이며, hervir la sangre(피를 끓이다), calentar la sangre(피를 덥히다)와도 같은 은유 구조로 생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LA IRA ES LÍQUIDO CALIENTE DENTRO DE UN RECIPIENTE(분노는 용기 안의 뜨거운 액체)의 개념 은유에 근거하여 유사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구체적인 근원영역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Estar hasta las narices/la coronilla/el gorro/los pelos는 분노가 용기의 최상단인 머리꼭대기까지 차올랐다는 뜻으로 한국어의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los cascos는 ‘머리’의 은유로 ‘이성, 통제력’의 비유적 표현이다. 분노라는 열기로 인해 용기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은 폭발하여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p. Juan está que revienta. Está a punto de explotar.(후안은 터지려고 해. 폭발 직전이야)
- q. A la menor provocación se dispara.(작은 자극에도 발사된다)
- r. No me hagas crujir los dientes.(내가 이를 갈도록 만들지 마)

스페인어 관용표현도 한국어처럼 가열되는 특성을 가진 분노의 감정이 몸이라는 용기를 터뜨리거나 그 압력으로 인해 용기가 진동하는 관습적 심상과 지식 하에 관용적 의미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노를 가열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용기, 즉 몸의 진동은 스페인어에서도 *crujir los dientes*로 비유되고 있다. 이는 ‘이를 갈다’는 뜻으로 한국어와 유사하며, *echar las muelas*(어금니를 세우다)와 동의어 관계에 있다.

- s. *Mi novia es mi válvula de escape.*(연인은 나의 배기관이다)
- t. *Necesito enfriarme.*(나는 식혀야만 해)

한편,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열을 받아 내부 압력이 상승한 용기를 식히거나 압력을 낮춰주는 은유 구조를 나타낸다.

### 3.1.3. LA IRA ES AGRESIVIDAD(분노는 폭력)

참을 수 없는 지경의 분노는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의 신체에 직접 분노를 발산하거나 위협을 목적으로 한다.

- a. 동료를 보는 눈이 곧두서 마치 눈에 칼(날)이/모가 선 것 같다.
- b.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도끼눈을 뜨셨다.
- c.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동료에게 다시 물었다.
- d. 그는 화를 안으로 삭히며 칼을 품었다/갈았다.

위 a, b는 상대방을 적의를 가지고 노려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눈에 독기를 품고 주시하는 모습을 뺨죽하거나 날카로운 사물로

묘사하거나, 상대를 해하는 절단 도구나 무기가 될 수 있는 도끼에 비유하는데, 이들 모두 한국인의 관습적 지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눈이 분노를 외면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3.1.1.의 한국어 사례와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가장 가까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주먹을 쥐는 것으로 파괴적·폭력적 감정을 극도로 표출하고, 분노의 감정을 유발시킨 상대를 해치는 칼을 품는 것으로 복수를 다짐한다. 칼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 심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 e. Juan está que muerde.(후안은 물어뜯을 지경이다)
- f. Está echando bombas/chuzos/venablos.(특탄/폭약/투창을 던질 지경이다)
- h. Me lo comería a bocados.(한 입에 먹어버릴 텐데)
- i. Mi papá puede estar de uñas porque mi hermano no ha llegado a la casa y ya son las dos de la mañana.(새벽 2시인데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빠가 손톱을 세우고 계실 것이다)

위의 e, f는 상대를 물어뜯는 짐승의 본능에 견주는 격한 심리 상태라던가 폭탄이나 창 등의 살상 무기를 내던질 정도라는 것으로 주어가 느끼는 분노의 정도를 언어화하고 있다. 또는 분노의 감정을 유발한 상대를 씹어 먹을 수 있다는 h의 경우도 적지 않은 폭력성을 내보인다. 반면, 상대방에게 손톱을 갈고 있다는 뜻의 i는 상대적으로 e~h에 비해 소극적인 폭력성을 띄고 있으나, 역시 쉬운 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보다시피 스페인어의 분노 관용표현은 한국어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한국어는 상대방을 노려보거나 주먹을 꼭 쥐거나 속으로 복수를 다짐한다는 소극적이고 위협에 그치는 은유 구조를 보이지만, 스페인어는 상대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공격적인 언어표현이 대부분이다.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LA IRA ES AGRESIVIDAD(분노는 폭력) 은유가 발견되지만, 구체적인 관용표현의 구조는 내부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 3.1.4. LA IRA ES AMPLIACIÓN, ALTERACIÓN Y DETERIORO (분노는 확장, 동요, 약화)

인간 감정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데, 특히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형성되는 표정을 통해 감정이 외면화되는 경우가 많다<sup>11)</sup>. 분노의 감정 또한 무의식적으로 눈이나 눈썹, 입의 모양을 바꾸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나운 표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신체와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 a. 눈/눈알/눈깔을 부라리다/부릅뜨다/홉뜨다/치뜨다/까뒤집다.
- b. 그 꼴을 보자 눈/간/심사/간장/복장이 뒤집히다.
- c. 동생에게만 옷을 사줘서 언니는 입을 내밀다/비쭈거리다.
- d. 마구 반말을 하는 손님들 때문에 비위<sup>12)</sup>가 상하다.
- e. 주인이 손님에게 핏대를 올리다/세우다/돋우다.

위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에는 화가 나서 팽창하거나 흘겨보는 눈의 모양, 또는 감정이 극에 달해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상태나 그 모양에 비유하는 관용표현이 다양하다. 눈뿐만 아니라 간장을 비롯한 내장이 뒤집히거나 입이 제 위치에서 돌출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분노 때문에 망

11) 문자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는 ⊕ ⊙ 등의 이모티콘은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일례이다.

12) 지라와 위(국립국어원)

친 기분은 내장이 변질된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분노로 혈관 벽에 미치는 혈액의 힘이 강해져 혈압이 오르는 생리적 현상을 관자놀이나 목의 정맥인 핏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은유화한다.

- f. Como sigan así se me van a hinchar las narices.(그렇게 계속하다간 나를 화나게 만들거야)
- g. Escucharla hablar así de mi tío me hace pudrirse la sangre.(삼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내 피를 상하게 만든다)
- h. Hoy tienes toda la mala uva encima.(오늘 너는 성질이 단단히 났구나)
- i. Juan y Ana llevan una semana de morros.(후안과 아나는 일주일간 냉담중이다)

Hinchársele(inflársele) a alguien las narices(코를 부풀리게 만들다)는 화가 나면 숨을 몰이쉬면서 콧망울이 벌름거리는 신체 작용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로마 연극에서는 심술궂은 사람을 표현할 때 콧망울이 과장된 가면을 착용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Buitrago Jiménez 1995: 210) 이 또한 인간 감정의 신체적 반응을 언어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Las narices(코)는 la vena(핏줄), la venada(핏줄), las pelotas(고환)<sup>13)</sup>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체될 수 있는데, 흥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목이나 두부(頭部) 정맥, 생식기를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여 혈관이 두드러져 보이는 양상이 언어화된 경우이기 때문이며, 혈관 확대의 사례는 한국어 ‘핏대를 세우다’와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또한 quemar/encender a alguien la sangre(피를 태우다)와 동의어 관계인 pudrirse a alguien la sangre(피가 썩다)는 동사의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태의 변질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한국어의 경우, 내장인

13) ‘고환’을 가리키는 속어

비위가 상한다는 비유에 근거해 분노 관용표현이 성립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라 하겠다.

한편, tener mal vino(상한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sup>14)</sup>에서 알 수 있듯이 tener mala uva, estar de mala uva(나쁜 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모두 포도(주)의 부정적 효과, 즉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의 표출에 쓰인다는 사실이 공통적이다. Mala uva(나쁜 포도)는 mala leche/baba(나쁜 우유/침), malas pulgas(나쁜 벼룩)와 동의어로 쓰이는데, 이들은 변질되어 신 맛이 나는 우유, 짐승이 광견병 등의 병에 걸려 흘리는 침, 벼룩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짜증에서 유래하였다(Buitrago Jiménez 1995: 392). 한국어와 같이 LA IRA ES AMPLIACIÓN, ALTERACIÓN Y DETERIORO(분노는 확장, 동요, 약화) 개념 은유 구조에 근거하지만, 유구한 포도주 문화, 상한 우유나 병든 짐승, 벼룩이 주는 불편함에 근거한 문화고유성이 가미된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화가 나서) 입이 나왔다’와 동일한 구조인 (estar) de morros는 estar uno con tanta jeta와 동의어 관계에 있으며, morro, jeta는 공통적으로 앞으로 돌출된 입이나 짐승의 주둥이나 부리를 가리킨다. 화가 나면 입 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입이 돌출하는 것은 감정의 신체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분노 관용표현에서 은유 구조는 문화보편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은유 형성에 개입하는 신체 부위가 다르고, 좀 더 다양한 장기 신체어를 통해 분노 표현이 이루어지는 반면 스페인어는 코나 혈관의 확대에 비유함으로써 감정의 신체 반응을 좀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언어화했고, 또한 전통적으로 식생활의 기본 요소인 포도주나 상한 우유에 불편한 심정을 빗대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통적인 개념 구조에 문화적 고유성이

14) ‘술을 마시고 폭력적으로 변하다’를 의미하는 관용표현

더해진 사례라고 하겠다.

### 3.2. 분노 관용어의 문화 의존적 요소와 은유적 다양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보편적으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개념들은 언어공동체의 문화적 특이성과 상관없이 유사한 구조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인간의 일상생활, 신체 구조, 생리 현상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인간의 기초적인 경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개념 은유 이론은 인간의 인지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회·문화마다 자체적인 고유성에 바탕을 두고 생성된 의미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면서 인간의 인지 체계를 구성하는 또 다른 모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결과 은유적인 사상은 다른 이미지로 해석되고 표출된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에도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토대가 되어 구조화된 은유가 존재하지만 개념 은유 이론으로만 설명되기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적인 지식과 관습에 의해 개념화된 분노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 3.2.1. LA IRA ES HUMO(분노는 연기)

스페인어에서 분노는 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분노가 연기라는 근원 영역으로 표출되는 것은 LA IRA ES FUEGO(분노는 불) 개념 은유와 관련되기 때문으로,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연기를 뿜는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LA IRA ES HUMO는 LA IRA ES FUEGO의 하위 개념적 은유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은유이기 때문에 문화의존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 a. Al alcalde se le ahumó el pescado y empezó a gritar.(시장은 무척 화가 나서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 b. Mi padre echa humo cada vez que pierde el partido.(아버지는 시험이 질 때마다 화를 내신다)
- c. Cuando me enteré de su engaño, se me subieron los humos.(그의 속임수를 깨닫자마자 나는 화가 솟구쳤다)



<그림 1> 분노

분노의 소산으로 간주되는 연기는 echar humo (por las orejas), subirle a uno el humo (a la cabeza/a las narices) 등의 관용표현에 비유적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며, 삽화나 만화에서는 옆의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 한국인에게도 매우 익숙한 형태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은유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는 더 복잡한 은유 구조인 ahumársele a alguien el pescado(~의 생선에 연기를 쐬다)의 관용표현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3.2.2. LA IRA ES BILIS(분노는 담즙)

분노를 담즙에 비유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에서 비롯되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앰페도클레스의 이론을 도입해 인간이 4개의 체액, 즉 혈액, 황담즙(bilis), 점액, 흑담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피는 열하고 습하며, 점액은 차고 습하고, 황담즙은 열하고 건조하며 흑담



좁은 차고 건조한 성질을 지닌다. 인간은 이들이 균형 잡힌 상태일 때 건강하며, 각각 어느 한 가지 체액을 중심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것으로 체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의학 이론이 4체액설이다. 18세기 후반 사체해부를 근거로 신체 장기의 국소적 변화 때문에 임상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4체액설이 부정될 때까지 2천여 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유럽은 이 학설을 정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sup>15)</sup> 이와 관련된 언어적 흔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a. Su corazón está hecho de hiel y se comporta conmigo muy mal.(그의 심장은 분노에 차서 나에게 나쁜 태도를 보인다)
- b. Mi carta le exaltó la bilis y le hizo montar en cólera.(내 편지는 그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필필 뛰게 만들었다)
- c. Volcó toda su bilis en sus empleados.(종업원에게 분노를 모두 퍼부었다)
- d. Ella salió del despacho echando la bilis.(그녀는 화를 내며 사무실에서 나갔다)
- e. Como no pude gritarle a la señora, tragué bilis.(나는 그 부인에게 소리 지를 수 없어서 분노를 삼켰다)

Bilis는 담즙 외에 그 자체로 ‘분노’와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echar la bilis, hacer bilis가 모두 enfurecerse(분노하다)를 뜻하며, bilis의 다른 말로 hiel이 쓰이기도 한다. Exaltársele la bilis a alguien은 분노의 감정이 갑자기 치솟는다는 의미이고, alterársele a alguien la bilis 또한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함을 뜻한다. 상대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것은 volcar (descargar) bilis en/contra~ 로 언어화되는 반면, 화를 참는 것은 tragar bilis의 관용 표현으로 표출된다. 스페인어에서 bilis는 매우 다양한 용언

1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1&contents\\_id=9414](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1&contents_id=9414)

과 함께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에서 간은 용기, 슬픔, 두려움, 긴장, 기쁨 등의 감정과 직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신체어로서, 앞에서 언급한 ‘간장이 뒤집히다’라는 관용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간에서 배출되는 담즙과 연관된 관용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3.2.3. LA IRA ES UNA ACCIÓN(분노는 행위)

스페인어에서 분노는 행위에 비유되는 경우가 특히 매우 빈번하다. 하향의 저조한 감정으로 인식되는 우울감과 달리 분노는 상향의 솟구치는 감정으로 보통 비유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인지 방식은 다음의 관용표현에 반영된다.

- a. No tiene motivos por los que el humo se le sube a las narices.(그는 화를 낼 이유가 없다)
- b. No vale la pena subirse a la parra por tan poca cosa.(그런 하찮은 일로 화를 낼 가치가 없다)
- c. Después de la pelea, está que se sube por las paredes.(싸운 다음에 무척 화가 나왔다)
- d. Cuando se lo dije, se puso por las nubes y me gritó.(그에게 그것을 말하자 화를 내며 내게 고함쳤다)

a~d에서 보다시피 분노 관용표현은 subir의 행위로 구조화된다. LA IRA ES HUMO(분노는 연기)의 개념 은유에서 언급했다시피, 분노는 불의 소산인 연기에 비유되어, 비교적 높은 위치의 신체어인 코에 오르는 것으로 은유화된다. 이때 el humo는 la mosca(파리), la mostaza(겨자) 등과 등가어로 간주되는데, 전자는 mal humor(불쾌감)의 의미로 쓰이기 때

문이며, 후자는 *amostazar*가 *enfadarse*(화내다)와 동의어 관계인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포도 재배의 전통에서 비롯된 *subirse a la parra*는 높이 열린 포도를 따기 위해 덩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시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Subirse por las paredes*, *ponerse uno por las nubes*<sup>16)</sup>도 모두 벽을 타고 오르거나 구름 위에 오르는 등의 상향의 행동으로 분노의 감정이 극도로 치솟았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끔 한다.

- e. *Tu falta de respeto me saca de quicio/mis casillas*.(너의 무례함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
- f. *El locutor de TV se salió de sus casillas en pleno programa*.(TV의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도중 화를 벌컥 냈다)
- g. *Perdió los estribos* y empezó a gritar y a dar golpes.(자제력을 잃고 고함을 치며 두드리기 시작했다)

*Casilla*는 *casa*의 축소형으로 장기처럼 칸을 옮겨가며 하는 게임에서 말이 위치하는 공간을 가리키며, 이는 직접적으로는 인내심을 잃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desquiciar a alguien*, *estar desquiciado*, *desquiciarse*와 의미상으로 동일한 파생 과정을 거친 *sacar a alguien de quicio*(~를 짜증나게 하다)도 타인이 분노의 감정을 돋우어 인내와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문을 벽에 고정시키는 경첩, 즉 *quicio*가 빠져 문이 벽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유사 표현으로 승마 시 발을 올려두는 등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비유한 *perder los estribos*가 있다.

16) ‘값 비싸다’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사실은 *MÁS ES ARRIBA*의 개념 은유와 동일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분노의 감정은 다음과 같은 행동에 비유되기도 한다.

- h. Está tan enfadada que echa el hatillo al mar.(너무 화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직전이었다)
- i. Cuando vio el desastre que habían hecho, le faltó poco para tirarse de las barbas.(난장판을 보고는 화가 나서 수염을 쥐어뜯을 정도였다)

Hatillo는 hato의 축소형으로서, 분노의 정도가 인내심을 바닥내고 여태껏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다에 집어 던질 정도라는 비유적 구조를 보인다. 또한 참지 못할 정도의 분노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쥐어뜯는 등 자신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에 비유된다.

### 3.2.4. LA IRA ES UN ANIMAL(분노는 동물)

특정 사회가 동물의 속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분노 은유로 구조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스페인어의 경우, 부정적 행동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 관용표현에서 자주 개나 기타 사나운 동물이 등장하는데, 특히 개는 한국어에서도 부정적 속성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공통점을 보인다. Cara de perro(개의 얼굴), humor de perros(개의 기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에 비유된 감정은 화가 나거나 불유쾌한 그것에 맞닿아 있다.

- a. No quiero más darme a perros por todo lo que me hiciste.(네가 내게 한 모든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싶지 않다)
- b. Carmen está hecha una hiena porque tú leíste su diario.(카르멘은 네가 그녀의 일기를 읽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c. No hay que ponerse como un tigre/una fiera por preguntar.(질문한 것

으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 d. Él suele estar hecho un león cuando pierde su equipo.(그는 그의 팀이 질 때면 화를 낸다)
- e. Ella no podía evitar ponerse mosca.(그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 f. De vez en cuando los novios están de monos.(두 연인은 가끔 화를 낸다)
- g. Es mejor no hablar con el jefe. Hoy está que trina.(보스랑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아. 오늘은 화가 나 있어)

b~g에서 보다시피, 화는 맹수,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원숭이, 파리 등 여러 동물에 비유된다. *Estar hecho una fiera*(짐승이 되다)는 *ponerse hecho una fiera*, *ponerse como una fiera* 등의 관용표현과 등가어이며, *estar de monos*(원숭이가 되다)도 *andar/estar con los monos*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비유된 분노 표현 g의 경우, 직접적인 동물에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전형적인 행위에 인간의 행위를 비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에도 동물 관련 분노 관용표현이 있지만 스페인어와 달리 동물 신체의 일부에 비유하여 은유가 구조화되었다.

- i. 화난 동생이 가자미/붕/독사의 눈을 하고/뜨고 나를 본다.
- j. 친구가 뿔이 나서/숫아서 집에 가버렸다.

날카롭고 뾰족하고 위로 솟은 뿔의 이미지에 치솟는 화를 비유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뱀을 빌어 겁을 주거나, 가상의 동물인 붕의 눈이 길고 사납게 생긴 모양새나 가자미의 눈처럼 한쪽으로 쏠린 모양에 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인간의 눈 모양을 비유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분노 관용표현 중 동물에 비유

된 경우가 있으나, 그 종류와 양상이 매우 상이하여 문화독립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 3.2.5. LA IRA ES UN SER MITOLÓGICO(분노는 신화적 존재)

스페인어에서 분노는 풍습이나 신앙,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로 은유화되는 경우가 있다.

- a. Se me llevaron los demonios cuando vi que me habías manchado el vestido nuevo.(새 원피스를 더럽힌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엄청 화가 났다)
- b. Mi abuelo está hecho un toro de fuego.(할아버지는 화가 나셨다)
- c. Está hecho una hidra/un basilisco y no deja de preguntar qué está ocurriendo aquí.(그는 화가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묻고 있다)
- d. Cuando está de mala hostia, lo paga con todo el mundo.(그는 기분 나쁠 때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버린다)

특히 악마 관련 분노 관용표현은 다양한 통사 구조를 보인다. Llevarse a uno el demonio/los demonios/todos los demonios, ponerse uno como un demonio/hecho un demonio, revestirle a uno el demonio/los demonios/todos los demonios, darse a todos los demonios 등은 모두 유사한 의미로, 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악마에 인간 감정을 비유하여 감정 크기의 강조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독교 문화 전통에 근거한 문화독립적 은유구조라고 하겠다.

또한 분노는 문화·전통의 소산물의 형태나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스페인 동부 지역에서 소의 뿔에 불을 매달아 날뛰게 하는 전통에서 비

롯된 *toro de fuego*(불로 만든 소)는 열기로 인해 펄펄 뛰는 소의 모습을 화난 사람에게 비유한 것이다.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 바실리스크에 비유된 관용표현도 있다. 바실리스크는 머리에 왕관 모양의 선명한 얼룩이 있는 뱀으로, 다리가 네 개이고 노란 깃털과 가시 돋친 날개, 그리고 꼬리가 갈고리처럼 생겼다. 바라보거나 스치는 것만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므로 분노한 사람을 이러한 형상에 비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실리스크는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른 괴물인 히드라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 히드라는 파충류형 괴물로서 아홉 개의 목을 가진 거대한 물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히드라 또한 내뿜는 숨결이나 피부에서 스며 나오는 점액으로 적을 섬멸했다는 점에서 바실리스크와 유사하고, 이 같은 이유에서 이들은 분노 관용표현에서 동일시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매우 속된 표현인 *estar de mala hostia*는 종교적인 연원을 가진다. 원래 가톨릭 제례에 사용되는 제병인 *hostia*는 라틴어로 ‘희생제물’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매우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현재는 역설적이게도 욕설에 가까운 속어로 화를 돋우는 상황에 사용되며, 스페인에서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감탄사에 가까운 상투적인 말로 인식되기도 한다<sup>17)</sup>.

#### 4. 나오는 말

은유는 감정이라는 추상적 실체를 개념화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생리적 반응과 언어 표현의 관계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경험과 밀접하게 동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분노 관용표현이 문화 공통적이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LA IRA ES

17) 예를 들어, ¡Hostia, qué susto me has dado!에서 *hostia*는 비속어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며, 경탄이나 불쾌감 등의 표출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FUEGO, LA IRA ES LÍQUIDO CALIENTE DENTRO EN UN RECIPIENTE, LA IRA ES AGRESIVIDAD, LA IRA ES AMPLIACIÓN, ALTERACIÓN Y DETERIORO 개념 은유가 양국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분노 관용표현은 문화의존적이기도 해서 사회·문화적 관습적 심상과 지식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분노 관용표현이 한국어에 비해 다양한 은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와는 다른 LA IRA ES HUMO, LA IRA ES BILIS, LA IRA ES UNA ACCIÓN, LA IRA ES UN ANIMAL, LA IRA ES UN SER MITOLÓGICO 등의 은유 구조에 기반을 둔 관용표현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은유가 세계를 보는 시각과 의미 구조에 간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일상의 은유가 신체와 사회·문화의 관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문화적 경험 차이가 언어공동체간 관용 표현의 차이를 촉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은유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화의 존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 동일한 근원 영역이 관용표현을 통해 언어화되는 양상을 대조 분석한 바, 분노의 개념화는 스페인어에서 더욱 정교하고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권 2호, 89쪽-117쪽.  
Buitrago Jiménez, A.(1995). *Diccionario de dichos y frases hecha*, Madrid: Espasa-Calpe.  
Coseriu, E.(1977), *Principios de semántica estructural*, Madrid: Gredos.



- Gibbs, R. W.(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look on the bright side (consistent idiom)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ribaren, J. M.(1996). *El porqué de los dichos*, Pamplona: Gobierno de Navarra.
- Johnson, M.(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reason and imagi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y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 Press. 노양진, 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Lakoff, G. y Johnson, M.(1986). *Metáfora de la vida cotidiana*(trad, de C. González Marín), Madrid: Cátedra.
- Luque Durán, J. y Manjón Pozas, F. J.(2002). “Claves culturales del diseño de las lengua: fundamentos de tipología fraseológica”. *Estudios de Lingüística del Español*, Vol. 16, pp. 186-199
- Martín Sánchez, M.(1997). *Diccionario del español coloquial: dichos, modismos y locuciones populares*, Madrid: Tellus.
- Penadés Martínez, I.(1999). *La enseñanza de las unidades fraseológicas*, Madrid: Arco Libros.
- Reddy, M.(1979). “The Conduit Metaphor”,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84-324.
- Ruiz Gurillo, L.(1997). *Aspectos de fraseología teórica española*, Valencia: Universidad de Valencia.
- Ruiz Gurillo, L.(1998). *La fraseología del español coloquial*, Barcelona: Ariel.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The mind-as-body metaphor in semantic structure and seman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Zuluaga, A.(1980). *Introducción al estudio de las expresiones fijas*, Tubinga: Max Hueber, Verlag.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네이버 캐스트. 4체역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1&contents\\_id=9414](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1&contents_id=9414))

조혜진(Cho Hye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4 이중언어학 제53호(2013)

전화번호: 010-5352-7084

전자우편: [hjflex@hanmail.net](mailto:hjflex@hanmail.net)

접수일자: 2013년 8월 19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9월 8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16일